"대출 연체 없으면 신용등급 올라"

100여명 대상 '신용관리체험단' 운영 71명 중 42명 신용평점 상승… 15명은 신용등급↑

#1. 30대 직장인 박모(여)씨는 몇년 전 가족의 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에서 1500만원을 빌렸다. 대출금도 대부분 갚고 연체도 거의 없어 안심했지만 최근 자신의 신용등급이 카드발급도 어려운 7등급이라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

박씨는 연체 위기가 자주 있었는데 3개의 신용카드는 한도를 거의 다 소진하면서 사용했다. 또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이마저도 250만원은 갚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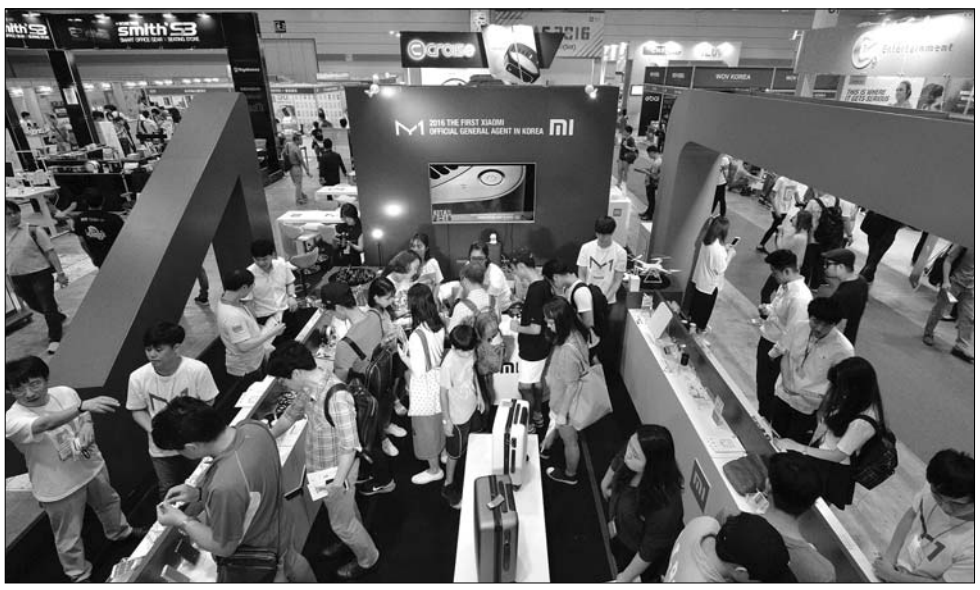
박씨는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을 병행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모두 갚았다. 또 통신비·건강보험을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도 등록해 신용평점이 올랐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 결과 신용등급이 2단계나 상승했다.

#2. 결혼을 앞둔 정씨는 은행에서 2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받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자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일반 대출 1500만원과 마이너스 대출 300만원이 있고, 지출이 많았다. 신용카드는 4개로 현금서비스도 수시로 사용했다. 이런 탓에 월급을 받아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정씨는 우선 급여를 생활비 통장, 대출상환 전용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마이너스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상환했다.

그 결과 2개월만에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4등급으로 2단계나 상승해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용하게 됐다.



IT악세사리 주변기기전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IT악세사리 주변기기전 2016이 많은 관람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관리체험단' 운영을 통해 본 신용관리 우수사례를 28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지난 5월부터 7주 동안 금융소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신용관리체험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본인의 신용상태를 진단받아 각자 신용등급에 대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한 후, 불필요한 대출 상환 등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신용을 관리했다.

운영 결과 미션을 완료한 71명 중 42명이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중 15명은 신용등급까지 올랐다. 대부분은 1등급이 올랐지만 성실하게 대출을 갚고 소비 실적도 우수한 참가자 2명은 등급이 2단계나 뛰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0.5등급에서 2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 개인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은행은 1등급 내외,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1.5등급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는 등급 하락 폭이 더 크다. 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며 적어도 1등급 이상 내려간다.

반대로 돈을 빌리더라도 연체 없이 성실히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연체 없이 꾸준히 결제해 실적을 쌓으면 신용평점이 올라간다. 또 체크카드는 가점이 있다.

금감원은 27일 해단식을 열고 활동 우수자 등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뉴시스

예금·대출 금리 '역대 최저'… 집단대출만↑

수신금리 1.44% · 대출금리 3.31%… 집단대출 금리는 2.94%로 0.04%p 늘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수신금리와 대출금리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집단대출 금리만 '나홀로' 상승세를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44%를 기록했다. 이는 1996년 금리통계 편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1.43%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1.51%) 이후 9개월 만에 또 다시 최저 수준을 경신한 것이다.

정기예금 금리 역시 지난해 9월(1.51%)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43%를 기록했다. 정기적금 금리도 1.68%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금융상품도 1.49%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대출 관련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31%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0.12%포인트 하락한 2.77%로, 지난해 4월(2.81) 이후 1년2개월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반면 집단대출 금리는 2.94%로 0.04%포인트 늘어났다. 집단대출 금리가 증가한 이유는 일부 지방은행들에서 고금리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 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06%로 지난 3월(3.24%) 부터 석달째 내림세를 지속했다.

기업대출(대기업·중소기업·운전자금·시설자금) 금리는 전달 대비 0.14% 내려간 3.41%로 최저치를 나타났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3.06%으로 전달 대비 0.21% 감소했고 중소기업대출 금리 역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한 3.64%로 집계됐다.

6월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전월보다 0.04%포인트 줄어든 1.87%로 집계됐다.

예대마진(잔액기준 총수신·총대출 금리차)은 2.18%로 전달과 동일했다. /뉴시스

상반기 회사채 발행 9.6% 줄어

주식 발행은 지난해 비 59.0% 늘어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직접금융 자금 조달 규모는 60조9537억원으로 1년 전(65조7274억원)보다 4조7737억원(7.3%)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주식 발행은 늘었지만 회사채 발행은 크게 줄었다.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3조564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9.0% 불었다.

유상증자가 30건, 2조633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745억원(49.7%) 증가했다. 삼성엔지니어링(1조2651억원), BNK금융지주(4725억원) 등 코스피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규모 늘었다.

기업공개(IPO)도 4486억원(93%) 증가한 9308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줄었지만 에스티팜(1352억원), 레이언스(1000억원) 등 코스닥기업의 대형 기업공개 등으로 발행규모는 증가했다.

반면 회사채 발행 규모는 57조3894억원원으로 일반회사채 발행 중심으로 1년 전보다 6조968억원(9.6%) 줄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등급 간 양극화 현상이 여전했지만 BBB 이하 등급 발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AA등급 발행비중은 80.9%, A등급은 11.8%, BBB 이하 등급 발행비중은 7.3%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여파로 회사채 거래 시장 수요가 많지 않다"며 "조선·해운·건설업 등이 몰려 있는 A등급의 회사채 발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가상현실 선도 프로젝트 수행 컨소시엄 확정

서비스 SBS · 체험 시공테크 · 테마파크 롯데월드 다면영상 CJCGV · 교육유통 한컴컨소시엄

미래창조과학부는 가상현실(VR)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컨소시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VR서비스 플랫폼은 SBS 컨소시엄(총 15개사 참여), VR게임 체험은 시공테크컨소시엄(8개사), VR테마파크는 롯데월드컨소시엄(12개사), 다면영상은 CJCGV컨소시엄(15개사), 교육유통은 한컴컨소시엄(10개사)이 선정됐다.

VR 5대 선도 프로젝트는 지난 2월 미래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동 간담회에서 발표한 '가상현실 신산업 플래그십 추진방안' 과제 중 하나다.

기존 개별단위 지원사업으로는 VR 같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연구개발(R&D)과 콘텐츠 개발 등을 동시 지원해 국내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은 참여 희망 기업이 사업 내용을 제안하는 자유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다. VR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되 중소기업과 수익배분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는 콘텐츠는 VR산업 거점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디지털파빌리온 등에 상설전시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서울 가상현실(VR) 페스티벌에서 시연,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뉴시스

"금융기관 연체채권 22조5551억원…은행 42% 차지"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이 2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여신취급기관의 연체채권 현황"(대부업체 제외)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말 기준 연체채권은 총 22조5551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연체채권은 9조6617억원(약 200만명), 법인 연체채권은 12조8934억원(16만9650곳) 규모였다. 1인당 연체채권은 평균 462만원, 기업은 1곳당 7055만원이었다.

여신취급기관별로는 은행이 9조4965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상호금융 4조7997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조5112억원 순이었다. /뉴시스